# 태풍 피해·추석 여파 농산물 가격 '껑충'

## 양동시장 배추 1포기 7000원
## 2주 전보다 3000원·75% ↑
## 무 500원·상추 200원 상승
## 과일 낙과 피해로 가격 오름세

주요 채소와 과일 가격이 태풍 '링링' 피해와 추석 여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1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1포기 가격은 7000원으로 2주 전 4000원보다 75% 올랐다. 이는 평년 가격이었던 6000원보다 16.6% 높은 수치다.

무 1개(2~2.5㎏) 가격도 2500원으로 2주 전 2000원보다 25% 상승했고, 상추(100g) 가격은 1000원으로 2주 전 보다 200원(25%) 올랐다.

애호박 1개는 2000원으로 2주 전보다 66.6% 올랐고 오이(10개)는 7000원으로 2주 전 1만원보다 30% 떨어졌다.

쌀(20㎏) 가격은 2주 전과 같은 5만2000원이었고 양파(1㎏) 가격도 1300원으로 제자리걸음했다. 대파 1㎏은 2주 전(2200원) 보다 소폭 오른 2500원이었고, 감자 100g은 230원으로 2주 전과 같았다.

과일의 경우 사과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보면서 점차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다.

양동시장에서 홍로 사과 10개는 지난 5일 2만원에 팔렸지만 주말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9일 2만5000원으로 뛰었다. 배(신고) 10개 가격은 1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1주일 전(4만원)보다 12.5% 떨어졌다.

포도(캠벨얼리) 1㎏ 가격은 5500원으로 2주일 전보다 8.3% 떨어졌다.

한편 한우등심 1등급 100g 가격은 7500원 ▲삼겹살(냉장) 100g 1890원 ▲닭고기 1㎏ 4200원으로 2주 전과 같았고, 계란(특란) 30개는 4300원에서 4600원으로 6.9% 올랐다.

농수산유통공사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호박 등 채소류 대부분 품목이 오름세를 유지하겠으나, 명절 이후에는 소비 둔화와 출하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돼 다소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주요 농산물 가격 추이**

〈광주 양동시장 기준, 단위:원〉

| 품목 | 2주 전 | 9월11일 | 증감률 |
|---|---|---|---|
| 배추 1포기 | 4000 | 7000 | 75% |
| 무 1개 | 2000 | 2500 | 25% |
| 상추 100g | 800 | 1000 | 25% |
| 애호박 1개 | 1200 | 2000 | 66.6% |
| 사과 10개 | 2만 | 2만5000 | 25% |
| 쌀 20㎏ | 5만2000 | 〃 | - |
| 양파 1㎏ | 1300 | 〃 | - |
| 포도 1㎏ | 6000 | 5500 | -8.3% |
| 오이 10개 | 1만 | 7000 | -30% |

# 올해 전남 봄감자 생산량 6만1193t·24.9% ↑

## 통계청 봄감자 생산량 조사
## 경북·충남 이어 전국 3번째

올해 전남 봄감자 생산량이 재배면적이 늘면서 1만2000t 증가했다. 지난해 감자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올해 봄감자 생산량은 6만1173t으로 지난해 4만8992t 보다 24.9% 증가했다.

전국에서 생산된 봄감자는 46만5948t으로 지난해 38만5244t 보다 20.9%(8만704t) 늘었다. 전남 생산량은 경북(7만8931t·16.9%), 충남(6만4224t·13.8%)에 이어 3번째(13.1%)를 차지했다.

광주 봄감자 생산량은 916t으로 지난해보다 27.4% 증가했다.

올해는 생육기에 강수량과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양호했고 병해 피해율도 감소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늘었다.

전남지역 봄감자 재배면적은 2273ha으로 지난해보다 10.2% 늘었고, 10a당 생산량은 2691㎏으로 13.3%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봄감자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도 가격이 괜찮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기대심리에 따라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미종 감자 상품 1㎏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7년 1920원에서 지난해에는 2609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1월~9월 10일) 평균 가격은 농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1654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백희준기자 bhj@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 60여 명은 최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광산구 요기동 벼 농가에서 복구 작업을 펼쳤다. 〈광주본부 제공〉

# 광주·전남 농협, 태풍피해 극복 '벼 세우기' 봉사활동

## 태풍 낙과 팔아주기 운동도

광주·전남지역 농협과 농업 당국이 태풍 '링링' 피해 복구에 나섰다.

1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전남지역에서는 4000여ha 농경지에서 농작물이 쓰러지고 1000ha 규모 과수 농가에서 과일이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농협 측은 지난 9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나주 배 피해 농가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전남지역 21개 농협 시군지부 660명은 태풍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해 낙과를 수거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는 작업 등을 펼쳤다.

광주지역에서는 63.4ha에 달하는 논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의 85% 이상은 광산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동곡농협 임직원 60여 명은 11일 광산구 요기동의 한 논을 찾아 벼 세우기 작업을 했다. 이날 일손돕기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협은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낙과(배 1000t·사과 500t)를 사들일 예정이다. 또 계약출하 잔여물량에 대한 농가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오는 23일부터 한 달 간 '태풍 낙과 팔아주기 운동'과 '피해농가 돕기 직거래장터'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열린다.

농협은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자금과 재해예산 143억원을 편성해 피해 농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전남농협, 내일 가축전염병 예방 일제 소독

## 30일 전주서 방역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오는 17일 지역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벌인다.

이번 소독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추석 명절 전인 지난 10일에도 실시했다. 〈사진〉

전남본부 공동방제단 101개 반은 소규모 축산농가와 가축밀집사육단지 4곳,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양돈농가 8곳에서 집중 소독을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전주에서 진행하는 호남권 교육 등 전국적으로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방역교육'을 펼친다. 이번 교육은 방역 담당공무원의 가축질병 발생시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농식품부는 가축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를 위해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심리지원 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배포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동물 사육장 환경 개선 기준 세운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21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동물 사육장의 밝기와 공기질 기준 등을 세워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주요 축종별 사육·관리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종별로 설정되는 기준으로는 동물 사육 시 밝기와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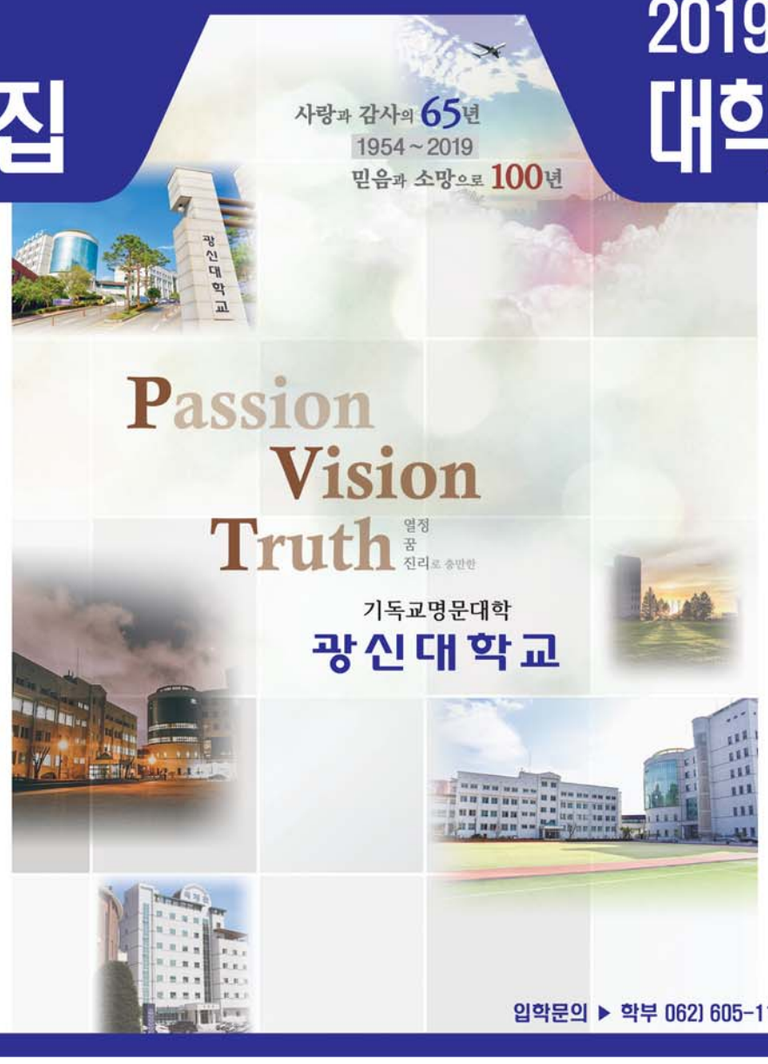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기자 bhj@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단위 | | 모집인원 | |
|---|---|---|---|
| 계열 | 학과 | 수시 | 정시 |
| 인문 | 신학과 | 30 | 15 |
| | 한국어교육학과 | 2 | 2 |
| 사범 | 유아교육과 | 7 | 3 |
| 사회 |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 31 | 3 |
| 예능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 25 | 5 |
| 총계 | | 95 | 28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 2020. 1. 7(화)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24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2 |
| | | 유아교육학과(D.Ed.) | 3 |
| | 석사 | 신학과(Th.M.) | 10 |
| | | 유아교육학과(M.Ed.) | 6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1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 4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 2019. 8. 20(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